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조선적성격에 대하여

박사 부교수 정 봉 찬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학분야에서는 앞으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력사연구를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과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야 할것입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246페이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유산들은 오늘날의 조선반도 전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들인 중국 동북지방과 로씨야의 연해변강일대에서 도 수많은 알려지고있다.

로씨야 연해변강일대의 력사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연구는 력사가들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다.

지난 시기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금속기시대 문화가 언제 어떻게 창조되고 발전하여 왔는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연해변강남부일대의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얀꼬브문화(패층문화), 크로우노브까문화로 구분한것이다.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의 초기철기시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의 고대사를 새로운 고고학적자료들로 더욱 풍부히 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연해변강일대가 우리 나라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린접한 지역일뿐아니라 고대시기에 우리 나라 령역의 한 부분으로 되어있었기때문이다.

1. 1. 얀꼬브문화의 유적유물과 년대

로씨야의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알려진 얀꼬브문화의 대표적인 유적들은 빼스찬니1유적, 말라야 뽀드쉐츠까유적, 차빠예브유적, 올레니1유적, 슬라반까1, 2유적 등이다.

빼스찬니1유적은 1921년에 처음 조사발굴되었고 그후 1960년대까지 여러차례 발굴되고 연구가 진행되였다.

이 유적은 연해변강의 남부 빼스찬니반도에 위치하고있다.

빼스찬니반도의 북쪽해안가를 따라가며 길이 약 1km 되는 구간에 조개비들이 쌓아져 툇무지를 이루고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조개무지에서 석기, 골기, 가락바퀴 등 로동 도구들과 질그릇조각들, 짐승뼈, 물고기뼈 등이 수집되였다. 이 조개무지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남겨졌다는것이 조사발굴과정에 알려지게 되였다.

말라야 뽀드쉐츠까유적은 연해변강남부일대를 가로질러 우쭈리만에 흘러드는 쭈호돌 강류역에 위치하고있다. 발굴결과 이 유적은 두개의 문화층을 이루고있다는것이 확인되

였다. 우에 놓인 층은 중세시기인 올긴문화층이며 그밑에 놓인 층은 초기철기시대 문화에 속하는 얀꼬브문화층이다.

차빠예브유적은 1973년과 1976년 등 여러차례 조사발굴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하나로서 연해변강 남부 하싼구역 차빠예브마을에서 알려졌다. 발굴당시 유적의 문화층은 심히 교란되었거나 파괴되어있었다.

이 유적에 대한 발굴은 드러난 매장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약 100m² 그리고 그로부터 동남쪽으로 얼마간 떨어진 바다기슭에서 약 100m²이상 범위로 진행되었다.

올레니1유적은 연해변강의 남부 슈꼬또브구역 아르좁지구 올레니마을에 위치하고있다.

발굴결과에 의하면 이 유적은 각이한 시기의 문화층이 서로 겹놓여있는데 제일 밑에 놓인 문화층은 구석기시대 문화층이고 그위에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놓이였으며 제일 위에 놓인 문화층이 얀꼬브문화층이라는것이 밝혀졌다.

올레니마을에서는 이 유적밖에도 올레니5유적을 비롯하여 두 지점에서 얀꼬브문화의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슬라반까1, 2유적은 비교적 자세히 조사발굴된 얀꼬브문화의 유적으로서 연해변강 남부 하싼구역의 소재지인 슬라반까마을에 위치하고있다.

슬라반까1유적은 1974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그후 1975년에 전면적인 발굴이 진행되었다. 발굴에 의하면 이 유적의 문화층은 약 200m²정도 범위에서 드러났다.

여러차례의 발굴과 연구과정에 이 유적은 1개의 문화층을 이룬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얀꼬브문화의 유적은 대부분이 부락을 이룬 집자리들이며 그밖에 일부 질그릇가마터와 매장지들도 있다.

그리고 얀꼬브문화의 유적들에서는 주머니식쇠도끼를 비롯하여 40여점의 금속제 유물과 2 000여점의 석기, 210여점의 골기, 90여점의 가락바퀴, 온전한 질그릇 95점과 5만 2천여점의 질그릇조각 등 수만점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지난 시기 얀꼬브문화의 년대에 대하여 각이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얀꼬브문화를 B.C. 12~B.C. 8세기, B.C. 10~B.C. 7세기, B.C. 9~B.C. 6세기 등으로 편년하였으며 또한 ¹⁴C년대측정자료에 근거하여 얀꼬브문화를 B.C. 8~B.C. 1세기경으로 편년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정형을 종합하여보면 얀꼬브문화는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가장 이른시기의 초기철기시대 문화이며 그 존재시기는 청동기시대 문화인 씨니가이문화와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사이에 놓인다고 볼수 있다.

현재 청동기시대 문화인 씨니가이문화의 마지막년대는 대체로 B.C. 10~B.C. 9세기경으로 편년되었고(《연해주고고학》로문 원동종합대학출판사 2004년 26페이지)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존재시기는 B.C. 420~A.D. 180년 또는 B.C. 7~B.C. 6세기경부터 B.C. 2세기까지로 보고있다.(《연해주고고학》로문 원동종합대학출판사 2004년 44페이지, 《발해동북부 및 속령의 경제와 문화연구》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 16페이지)

자료들은 씨니가이문화가 대체로 B.C. 1000년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존재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얀꼬브문화는 B.C. 1000년기 초경부터 B.C. 1000년기 중엽경에 창조된 문화라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년대는 얀꼬브문화가 B.C. 8~B.C. 1세기경에 해당한다는 ¹⁴C절대년대측정자료와도 대체로 부합된다.(《연해주고고학》로문 원동종합대학출판사 2004년 36페이지)

1. 2.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유적유물과년대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안꼬브문화에 뒤이어 창조된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유적과 유물들은 라즈돌리나야강(쑤이편강)연안, 뿌리한까평야지대, 아르쎬모브까강연안, 쑤꼬포브까강연안, 우쑤리강상류 및 일리스따야강류역을 비롯하여 주로 연해변강의 남부지역에 분포되어있으며 동북쪽으로는 제르깔리나야강류역까지 미친다.((《연해주고고학》로문 원동종합대학출판사 2004년 37페이지)

크로우노브까문화의 대표적인 유적들은 크로우노브까유적, 쎄끼나야 쇠쁘까유적, 올레니A유적, 아르쎬모브까강우안과 이즈베스뜨꼬바언덕에서 발굴된 유적, 쎄미빠뜨나유적, 빼뜨로브섬유적 등이다.

크로우노브까유적은 1956~1957년에 연해변강의 우쑤리스크시에서 4km정도 떨어진 크로우노브까강류역에서 조사발굴되었고 쎄미빠뜨나유적도 1956년에 한카호부근에 자리잡고있는 노보까찰린마을의 쎄미빠뜨나산릉선에서 발굴되었다.

그리고 올레니A유적은 연해변강의 행정중심지인 올라지보스토크시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자리잡고있는 올레니마을에 위치하고있으며 쎄끼나야 쇠쁘까유적은 우쑤리스크시에서 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는 뽀크로브까마을의 언덕에서 드러났다.

빼뜨로브섬유적은 1965~1966년에 우쑤리만의 동쪽에 치우쳐있는 빼뜨로브섬에서 발견되었다.((《씨비리남부와 원동고고학》로문 과학출판사 1984년 154페이지)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여러 유적들에서는 집자리들과 수공업장, 저장용구덩이 등이 드러났고 이즈베스뜨꼬바언덕, 아르쎬모브까강우안, 올레니마을부근, 크로우노브까마을부근 등에서는 무덤들도 발견되었다.

이 유적들가운데서 크로우노브까문화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유적은 집자리와 무덤이다.

집자리들은 크로우노브까유적, 쎄미빠뜨나유적, 올레니A유적, 빼뜨로브섬유적 등 거의 모든 유적들에서 알려졌는데 앞선 안꼬브문화의 집자리짜임새와 같이 땅을 파서 기초시설을 마련한 움집들도 있지만 방바닥에 온돌난방시설인 구들고래가 있는것과 지상가옥들이 새롭게 보인다.

크로우노브까문화의 무덤유적으로는 돌관무덤이 알려졌으며 고인돌무덤도 있다고 한다.

이 유적들에서는 철기, 청동기, 일부 석기와 골기, 질그릇, 껌묻거리 등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크로우노브까문화는 안꼬브문화에 뒤이어 창조된 문화로서 그년대는 B.C. 420~A.D. 180년전 또는 B.C. 6~B.C. 2세기까지로 편년되었다.((《연해주고고학》로문 원동종합대학출판사 2004년 44페이지, 《발해동북부 및 속령의 경제와 문화연구》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 16페이지)

이것은 크로우노브까문화가 대체로 B.C. 1000년기 중엽경부터 기원전후한시기까지 존재한 문화라는것을 말해준다.

이 론문에서는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유적유물갖춤새가 우리 나라 고대문화와 공통성을 가지며 고대조선사람들이 창조한 조선적성격이 뚜렷한 문화라는것을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 1. 안꼬브문화의 조선적성격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알려진 안꼬브문화의 조선적성격은 오동유적, 초도유적, 범의구석유적 등 우리 나라 동북부일대의 고대문화갖춤새와 공통성을 가진다는데서 알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집자리짜임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집자리유적은 빼스찬니1유적, 차빠예브유적, 말라야 뽀드쉐츠까유적 등을 비롯하여 안꼬브문화의 여러 유적들에서 알려졌다.

빼스찬니1유적에서는 19개의 집자리들 가운데서 14개의 집자리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5호, 11호 집자리들과 같이 벽가에 단이 있는 것이 있고 9호 집자리의 평면륜곽이 장방형의 세모서리를 안쪽으로 우묵하게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특이한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이 집자리들을 제외한 모든 집자리들은 모두가 땅을 파서 기초시설을 마련한 움집형식들이며 움의 깊이는 1호 집자리가 대체로 50~90cm이고 3호 집자리가 50~100cm, 7호 집자리가 40~90cm로서 1m미만이였다.

집자리들의 평면륜곽은 14호 집자리만이 네모형으로 인정되고 다른 집자리들은 모두 장방형이며 움벽은 거의 수직이거나 안쪽으로 경사졌다. 집자리들의 바닥은 진흙을 다지거나 고루어 수평을 이룬 것이 대부분이였다.

말라야 뽀드쉐츠까유적에서 드러난 7개의 집자리들을 보아도 모두 땅을 파서 기초시설을 마련한 움집들이며 평면륜곽은 장방형을 이룬 것이였다.

차빠예브유적을 비롯하여 안꼬브문화의 다른 유적들에서 알려진 집자리들도 길이축 방향만이 차이날 뿐 평면륜곽은 장방형이며 바닥을 다지거나 고루 편 움집들이라는 데서는 빼스찬니1유적이나 말라야 뽀드쉐츠까유적의 집자리짜임새와 같았다.

이것은 땅을 파서 기초시설을 마련한 움집형식의 집자리들이 오동유적, 초도유적, 범의구석유적 등 우리 나라의 고대문화층에서 발굴된 집자리들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함경북도 회령시 오동유적에서 발굴된 집자리들을 보면 움의 깊이가 1기의 2호 집자리가 85~91cm, 2기의 8호 집자리가 75cm(일부 지점에서는 130~140cm), 3기의 5호 집자리가 79cm 정도로서 대체로 가장 깊은 곳이 1m미만이였다. (《회령 오동원시유적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9년 18페이지 21~25페이지)

그리고 집자리의 평면륜곽도 3기의 5호 집자리만이 네모형에 가까웠고 나머지 집자리들은 모두 장방형이였다. 움벽이 거의 수직이거나 안쪽으로 경사진 것, 방바닥이 대부분 수평을 이룬 것, 방바닥에 진흙을 깔 것 등에서도 빼스찬니1유적, 말라야 뽀드쉐츠까유적 등 안꼬브문화의 집자리짜임새와 다름이 없다.

안꼬브문화의 집자리들에서 기둥구멍들은 벽가에만 배열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벽가와 방바닥에 배열되어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빼스찬니1유적의 1호, 3호, 5호, 7호, 9호, 10호 집자리와 차빠예브유적의 4호 집자리에서 기둥구멍들은 벽가와 방바닥에 배열되어 있었다. 특히 빼스찬니1유적의 1호 집자리에서

기둥구멍들은 벽가로부터 안쪽으로 약 50cm정도 들어와 길이축방향으로 150~200cm간격으로 배열되어있을뿐아니라 방바닥중심에도 역시 길이축방향으로 기둥구멍들이 300cm간격을 두고 두줄로 배열되어 모두 4줄을 이루었다.

차빠예브유적 4호집자리에서도 기둥구멍들은 집자리의 벽가와 방바닥의 중심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크기는 직경 15~30cm, 깊이 15~20cm정도였다.((얀꼬브문화》로문 과학출판사 1986년 26~27페이지)

이러한 기둥구멍들의 배열상태는 오동유적 1기의 2호집자리, 2기의 4호, 8호집자리, 3기의 5호집자리들과 범의구석유적 2기의 15호, 35호, 40호집자리, 3기의 4호, 19호집자리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동북부지역의 고대유적들에서 발굴된 거의 모든 집자리들에서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오동유적 1기의 2호집자리는 빼스찬니1유적의 1호, 3호집자리에서 본것처럼 긴축방향으로 벽가와 바닥에 4줄로 기둥구멍들이 배열되어있었다. 기둥구멍들사이의 간격은 동쪽 2줄사이가 250cm, 서쪽 두줄사이 200cm, 가운데 두줄사이 150cm정도이다.

화독의 형태와 배열방식을 보아도 빼스찬니1유적의 8호, 9호, 11호, 12호집자리들을 제외한 다른 집자리들과 말라야 뽀드쉐츠카유적의 1호, 2호집자리, 차빠예브유적의 1호, 4호집자리들에서는 방바닥을 파거나 방바닥에 돌이나 흙덩이들을 둘러놓아 마련한것이였다.

빼스찬니1유적과 말라야 뽀드쉐츠카유적, 차빠예브유적의 집자리들에서는 방바닥에서 화독이 한개가 알려졌고 빼스찬니1유적의 1호집자리와 5호집자리의 방바닥에서는 두개의 화독이 드러났다. 그리고 빼스찬니1유적의 4호집자리에서는 두개이상의 화독이 발견되였다.

화독들의 평면รูป은 타원형, 원형, 모죽은 방형 등 여러가지이다.

집자리들에서 알려진 화독들의 깊이는 대체로 10~30cm안팎이고 직경은 100cm정도였다.

한편 동북조선일대의 오동유적 1기의 1호집자리에서는 바닥중심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화독자리가 있는데 평면은 원형이며 땅을 우묵하게 파고 큼직한 강돌 6개를 둘러놓아 마련하였으며 2호집자리의 바닥에서 드러난 화독도 역시 평면이 타원형이고 직경이 약 1m정도 되며 방바닥을 파서 만든것이였다.

이런 짜임새의 화독시설은 범의구석유적, 초도유적의 고대집자리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는것이였다.

이와 같이 얀꼬브문화의 유적들에서 드러난 대부분의 집자리들은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초도유적 등 우리 나라의 동북부지역의 고대집자리짜임새와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또한 유물갯춤새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얀꼬브문화의 유적들에서는 철기, 청동기, 석기, 골기, 질그릇 등 유물들이 적지 않게 알려졌는데 그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철기가 처음으로 발견된것이다.

철기가 발견된 대표적인 유적은 빼스찬니1유적의 3호, 7호, 9호, 12호집자리와 말라야 뽀드쉐츠카유적 1호, 3호, 4호집자리 등이며 그가운데서 빼스찬니1유적의 3호, 9호집자리들에서 발견된 철제품들은 산화가 심하여 그 생김새와 용도를 잘 알수 없게 되였다.

빼스찬니1유적의 7호집자리와 12호집자리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쇠도끼가 각각 1개씩 발견되었고 말라야 뽀드쉐츠카유적의 여러 집자리들에서는 모두 9개의 쇠도끼가 알려졌다.((조선고고학총서》2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주체98(2009)년 29, 41, 48, 61페이지)

쇠도끼들은 다같이 날쪽이 넓고 등쪽이 약간 좁아들어 그 평면생김새가 장방형에 가까웠고 세로자름면은 3각형 또는 2등변3각형모양이다. 그리고 날과 반대되는 등쪽에 자

루를 끼울수 있는 주머니모양의 구멍이 있다. 쇠도끼들의 크기를 보면 길이 9.5cm, 너비 6cm, 등부분의 두께 2.5cm정도 되는것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쇠도끼들이 우리 나라의 동북부지역의 고대유적들에서도 이미 적지 않게 알려졌다.

오동유적 4기의 6호집자리와 범의구석유적 5기의 18호집자리, 6기의 17호, 21호집자리, 3시굴점 등에서 등쪽에 맞춤구멍이 있는 주머니식쇠도끼들이 여러점이 발견되었다.

오동유적 4기의 6호집자리에서는 나온 쇠도끼 1개와 그 조각은 비교적 온전한것으로서 길이 10cm, 너비 5.5cm정도이며 평면생김새는 장방형이고 세로자름면은 3각형모양을 이루었다. 날은 약간 호선을 이루었고 날과 반대되는 등쪽에는 평면이 장방형인 주머니모양의 맞춤구멍이 있다.

이 쇠도끼는 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뿐 그 평면생김새나 세로자름면의 생김새, 등쪽에 주머니모양의 맞춤구멍이 있는것 등에서 안포브문화의 뻘스찬니1유적과 말라야쁘드췌츠까유적에서 발견된 쇠도끼와 같은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B.C. 2천년기 말경에 이미 철기가 발명되어 쓰이기 시작하였지만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는 B.C. 1천년기 초엽경에야 도끼를 비롯하여 철기가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동북부일대의 고대유적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머니식쇠도끼들이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안포브문화의 유적들에서 새롭게 발견되는것은 안포브문화의 조선적성격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의 하나로 된다.

안포브문화의 유적들에서 발견된 석기들을 보면 재료와 종류, 생김새 등에서 우리 나라에서 발굴된 고대유적들의 석기갓춤새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안포브문화의 석기들은 점판암, 편암, 현무암, 사암, 화강암, 응회암, 섬록암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그가운데서도 활촉, 창끝, 반달칼, 단검 등과 같이 점판암이나 편암을 재료로 한것이 량적으로 많았다.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초도유적 등 우리 나라 동북부일대의 고대유적들에서 알려진 석기들을 보아도 같아서 만든 활촉, 창끝, 칼, 반달칼 등은 거의 모두가 점판암이나 편암을 재료로 하여 만든것이였다.

이와 함께 안포브문화의 유적들에서는 도끼, 자귀, 끌, 반달칼, 갈돌, 창끝, 칼, 그물추, 가락바퀴, 망치 등 각이한 석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나라의 동북부지역의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초도유적 등의 고대문화층에서도 공구류, 농구류, 물고기잡이도구, 사냥도구, 실낱이도구로 구분되는 같은 종류의 석기들이 모두 알려졌다.

개별적인 석기들을 보아도 형태상으로 같거나 비슷한것들을 흔히 찾아볼수 있다.

안포브문화의 여러 집자리들에서 알려진 돌도끼들을 보면 그 생김새와 크기 등에서 서로 다른것들이 있지만 평면생김새가 길쭉한 장방형 혹은 제형이고 가로자름면도 장방형인 도끼들이 많은 수량을 차지하였다.

평면생김새가 길쭉한 장방형 또는 제형이고 가로자름면의 생김새도 납작한 장방형인 도끼들은 동북조선의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초도유적 등의 고대문화층들에서도 적지 않게 알려졌다.

돌도끼뿐아니라 뻘스찬니1유적에서 알려진 활촉, 창끝, 반달칼, 갈돌, 그물추 등 대부분의 석기들은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초도유적 등 동북조선의 고대문화층에서 나온 것들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더우기 활촉, 창끝, 반달칼과 같은것들은 생김새뿐아니라 재료도 같았고 제작수법이 비슷하였다.

질그릇갓춤새를 보면 안포브문화의 유적들에서 발견된 질그릇들은 대부분이 모래를

주되는 섞음재로 하였으며 색깔은 갈색계통이 기본이고 일부 붉은 간그릇도 보이는것이 특징적이다.

빼스찬니1유적의 집자리들과 그 주변에서 나온 온전한 질그릇 35점과 2만여점에 달하는 질그릇조각들을 보면 모래를 섞음재로 하여 만든것들이 많았으며 색깔은 갈색계통이 기본이고 일부 붉은 간그릇도 보인다.((얀꼬브문화》로문 과학출판사 1986년 118페이지)

얀꼬브문화의 질그릇갓춤새에서 바탕흙에 모래를 섞음재로 한것, 갈색계통이 많고 붉은 간그릇이 보이는것, 민그릇이 상대적으로 많은것, 꼭지모양의 손잡이가 달린것 등은 역시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초도유적 등 동북조선일대의 고대문화층에서 발견된 질그릇갓춤새와 공통되는 측면이다.

오동유적에서는 독, 단지, 바리, 대접, 접시, 보시기, 시루, 잔 등의 유물들이 많이 알려졌으며 질그릇의 색깔과 모양은 갈색민그릇, 갈색간그릇, 붉은 간그릇, 꼭지손잡이그릇으로도 구분된다.

오동유적의 질그릇들가운데 량적으로 제일 많은것이 갈색민그릇이고 붉은 간그릇도 일부 보이는데 이것은 빼스찬니1유적을 비롯한 얀꼬브문화의 질그릇갓춤새와 공통되는 것이다.((회령 오동원시유적발굴보고》과학원출판사 1959년 42~51페이지)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초도유적 등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동북부지역의 고대유적들에서는 생김새와 크기에서 얀꼬브문화의 유적들에서 발견된 대접, 보시기, 잔, 단지 등과 같은 그릇종류들을 모두 찾아볼수 있다.

이와 같이 얀꼬브문화의 질그릇갓춤새는 바탕흙과 종류, 생김새, 결면색깔, 무늬 등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 나라 동북부일대에서 창조된 오동유적, 초도유적, 범의구석유적 등의 질그릇갓춤새와 같았다.

질그릇은 그것을 남긴 주민집단들의 감정과 정서, 생활풍습 등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이다.

로씨야의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얀꼬브문화는 집자리짜임새와 유물갓춤새에서 우리 나라의 동북부지역의 오동유적, 초도유적, 범의구석유적 등의것과 공통성을 가지는 문화이다.

얀꼬브문화의 집자리짜임새와 유물갓춤새가 우리 나라의 동북부지역의 고대문화갓춤새와 공통성을 가지는것은 얀꼬브문화의 유적유물들이 우리 나라 금속기시대 문화의 보급과정에 남겨졌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로씨야 연해변강일대에서 창조된 얀꼬브문화의 유적과 유물들은 이 지역에서 발전한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조선적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자료로 된다.

2. 2.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조선적성격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조선적성격은 그것이 좁은뜻단점문화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나라 고대문화와 공통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집자리짜임새에서 찾아볼수 있다.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집자리들은 크로우노브까유적, 쉼미빠뜨나유적, 올레니A유적, 빼프로브섬유적 등 거의 모든 유적들에서 부락을 이론채로 드러났다. 집자리짜임새를 보면 대부분 땅을 파서 기초시설을 마련한 움집들이며 바닥은 수평이다. 집자리바닥복판쯤에 흔히 화독시설이 있다.

그런데 이 유적들의 일부 집자리에서는 판돌들을 련결하여 만든 온돌난방시설이 새

롭게 알려지는것이 앞선 안포브문화의 집자리짜임새와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이다.

크로우노브까유적의 한개 집자리에서는 바닥에서 돌시설이 드러났는데 그 재료는 넓적하고 얇은 사암 혹은 현무암이다. 돌시설짜임새를 보면 돌들을 두줄로 평행되게 이어 세워 7자모양의 고래를 만든 다음 그우에 판돌을 올려놓은것이다.

고래안에는 불에 구워진 불그스레한 흙이 채워져있었다. 이것은 다름아닌 7자모양의 외고래구들시설인것이다.《연해주와 연아무르의 먼 과거》로문 원동서적출판사 1973년 256페이지)

이처럼 집자리짜임새에서 온돌난방시설인 구들이 발생한것은 크로우노브까문화의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온돌난방시설은 납작한 판돌들을 세워 이어대고 그우에 판돌을 덮은 좁고 긴 형식의 고래구들로서 고대조선사람들속에서 창안도입된 독특한 형식인것이다. 고대조선사람들이 남긴 우리 나라 평안북도 녕변군 세죽리유적, 중국 료녕성 무순시 련화보유적 등의 온돌시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세죽리유적 철기시대 문화층에서는 5개의 집자리가 발굴되었는데 이 집자리들가운데서 2개의 집자리는 7자모양의 외고래구들이 있는것이였다. 구들은 돌을 두줄로 평행되게 이어세워서 구들고래를 만들고 그우에 구들장을 올려놓은것이였다. 이러한 구들시설을 갖춘 집자리는 고조선사람들에 의하여 남겨진 련화보유적의 집자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조선고고학개요》과학백사전출판사 1977년 140페이지)

고대조선사람들에 의하여 창안되고 널리 리용된 독특한 구들고래형식의 온돌난방시설이 로씨야 연해변강남부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집자리짜임새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것은 이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이 고대조선사람들과 뉘수없이 련관된 같은 계통의 사람들 이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것은 다음으로 무덤짜임새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크로우노브까문화의 무덤유적으로는 돌관무덤과 고인돌무덤이 알려졌다.

돌관무덤은 이즈베스트꼬바언덕, 아르제모브까강우안, 올레니마울부근, 크로우노브까마울부근 등에서 알려졌다는데 그가운데서 보존상태가 좋은것은 크로우노브까마울부근의 수림속에서 1994년에 발견된 무덤이다.

이 무덤은 넓적한 판돌들을 조립하여 장방형의 주검칸을 만든 다음 그우에 길이 94cm, 너비 65cm 되는 넓적한 판돌을 올려놓은 형식이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인정되는 몇기의 무덤들이 파괴된 상태로 그 주변에 있었다.

이즈베스트꼬바언덕에서도 판돌들을 조립하여 만든 무덤이 발견되였다.

아르제모브까강우안, 올레니마울부근의 무덤들은 넓적한 판돌들을 조립하여 만든 돌관무덤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 돌관무덤은 고인돌무덤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고조선시기에 널리 쓰인 무덤형식의 하나이다.

돌관무덤은 구조형식으로 볼 때 주검을 넣는 돌관을 장방형으로 조립한 수혈식무덤으로서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평안남도 북창군 병암리, 자강도 강계시 공귀동, 황해북도 신평군 선암리, 사리원시 등에서도 적지 않게 알려졌다.

돌관무덤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청동기시대에 발생하여 고조선전기의 전기간에 걸쳐 보급되였다. 고조선시기의 돌관무덤은 그 존속기간이 1 500여년이라는 오랜 력사적시기를 포괄하고있다.

돌관무덤은 고조선뿐아니라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인 구려, 부여, 진국에서도 많이 쓰

인 무덤형식이였다.

돌관무덤과 함께 고인돌무덤도 고대조선사람들의 슬기와 재능, 문화와 풍습의 특성을 가장 뚜렷이 반영하고있는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로서 오늘의 조선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에 널리 분포되어있다.

그런데 최근에 연해변강의 남부일대에서는 고인돌무덤으로 인정되는 돌구조물들이 새롭게 조사되였다.

고인돌무덤으로 보는 돌구조물은 2002년 10월에 연해변강의 빠르찌잔스끄구역 브란겔마을에서 처음으로 5기나 발견되였다. 그가운데서 1기는 브란겔마을에서 동쪽으로 30°미만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뻗어나간 암반지대에서 나타났다.《태평양고고학의 견지에서 본 연해주와 연아무르의 고대》로문 원동종합대학출판사 2003년 130페이지)

해발 165m의 높이에 자리잡고있는 이 돌구조물의 짜임새를 보면 1개의 크고 두터운 뚜껑돌과 그것을 받치는 2개의 고임돌로 이루어졌고 길이측은 북남향이며 뚜껑돌이 북쪽으로 얼마간 치우쳐 놓여있었다.

뚜껑돌의 크기는 길이가 4.6m, 너비 4m이며 밑면은 평탄하고 윗면은 둥근 지붕모양이다.

뚜껑돌밑에 거의 수직으로 세워져있는 2개의 고임돌들가운데서 1개의 고임돌크기는 길이 2.5m, 너비 2.3m이고 다른 1개의 고임돌크기는 길이 2.7m, 너비 2.2m정도였다. 고임돌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상에 드러나있는 상태이다.

발견당시 뚜껑돌과 고임돌들사이에는 빈 공간을 이루었고 남쪽은 막음돌이 없이 개방되어있었다.

이 돌구조물에서 주목되는것은 뚜껑돌의 앞면밑부분에 동쪽으로 치우쳐(동쪽고임돌과 접하는 부분) 크기가 각이한 홈구멍들이 있는것이다.《태평양고고학의 견지에서 본 연해주와 연아무르의 고대》로문 원동종합대학출판사 2003년 132~133페이지)

발견당시 홈구멍들이 있는 곳의 돌표면은 상대적으로 보드랍고 돌가루들이 손바닥에 잘 묻어난다고 하였다.

조사자들은 이 돌구조물의 짜임새가 자연적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며 특히 뚜껑돌의 앞면에 있는 홈구멍들은 고대사람들의 예술적상징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로씨야 연해변강일대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고인돌무덤이라고 소개하고있다.

브란겔마을의 다른 곳에도 고인돌무덤으로 인정되는 4개의 돌구조물들이 분포되어있으며 그가운데서 1개의 돌구조물에는 평면이 원형인 홈구멍들이 있다고 한다.

아직 과학적인 발굴이 진행되지 않아 그 짜임새에 대하여 자세히 론할수는 없지만 소개된 조사자료와 사진자료에 의하면 브란겔마을에 분포되어있는 돌구조물들은 오덕형 고인돌무덤형식으로 인정된다.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돌관무덤과 고인돌무덤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학자들은 이 유적들을 크로우노브까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고대에 널리 쓰인 돌관무덤과 고인돌무덤형식이 연해변강남부일대의 크로우노브까문화에서 보급된것은 우리 나라 고대문화와 크로우노브까문화의 공통성과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조선적성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준다.

그것은 다음으로 유물갖춤새에서 더욱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유적들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알려졌는데 그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청동단검과 낫거울을 비롯한 청동기들이다.

청동단검은 이즈베스뜨코바언덕의 무덤에서 2점 알려졌다. 그것들은 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뿐 그 생김새는 꼭 같은것이다. 한점은 길이가 31.2cm, 다른 한점은 31.4cm 되는 좁고 긴 모양으로서 모두 검몸의 한가운데에 등대가 세로 두드러져있으며 거기에 등날이 서있다. 등대양쪽의 검날부위에는 안으로 약간 오무라든 예임이 있다. 이 검은 검몸, 검자루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하여 쓰게 되어있는 좁은놋단검으로서 검몸과 검자루를 하나로 붙여 만든 중국의 도씨검이나 씨비리의 따가르검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이즈베스뜨코바언덕의 무덤에서는 청동단검과 함께 청동창끝, 청동거울도 알려졌다.

창끝은 단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길이가 13.6cm로서 보다 짧고 밑부분에는 긴 자루를 끼워맞출수 있게 되어있는것이다.

청동거울은 직경이 12.5cm 되는 둥근 모양의 생김새인데 앞면은 매끈하게 갈아서 잘 비칠수 있게 하였으며 거울뒤면에는 중심부에서 약간 치우쳐서 끈을 꿰는 고리가 2개 있고 뒤면전체에 가는 선으로 된 무늬가 새겨져있다.

무늬는 2개의 원둘레와 많은 직선들이 찌그러지거나 맞붙은것이 없이 규칙적인 각도를 이루며 장식되었다. 이 거울은 거울뒤면중심에 반구형의 꼭지가 1개 있는 당시 중국의 거울들과는 다르며 또 뒤면에 장식된 무늬나 거울테두리단면생김새를 비교해보아도 중국의 《한경》, 《전국경》 등과는 전혀 다른 청동거울이다.

이러한 좁은놋단검, 좁은놋창끝, 청동거울은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령역에서 알려진 독특한 유물이다.

좁은놋단검은 단군조선시기의 비파형단검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무기로서 B.C. 2000년기 말경부터 고조선, 진국 등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에서 쓰이였다.

우리 나라의 황해북도 황주군 천주리, 은파군 갈현리,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리, 벽성군, 경상북도 경주시 입실동 등 고조선과 진국령내에서는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좁은놋단검과 같거나 비슷한것들이 발굴되었는데 그것들은 후기형의 좁은놋단검들이다.

흔히 좁은놋단검과 함께 나오는 좁은놋창끝, 청동거울도 우리 나라 고대유적들에서 알려진 유물들이다.

이밖에도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유적들에서 나온 주머니식쇠도끼, 높은 굽이 달렸거나 그릇몸체에 소뿔형 혹은 꼭지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질그릇들, 밑창에 구멍이 뚫어진 시루 등의 유물들도 고조선을 비롯한 우리 나라 고대유물들에서 찾아볼수 있는것들이다.

주변지역의 유물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며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에서 널리 쓰인 좁은놋단검, 좁은놋창끝, 청동거울 등 특징적인 유물들이 연해변강남부의 크로우노브까문화유적들에서 발견되는것은 바로 그것을 남긴 사람들이 고대조선사람들의 한계통이었다는것을 확고히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크로우노브까문화는 우리 나라 고대문화와 떼어 수 없는 련관속에서 창조되고 발전한 조선적성격이 뚜렷한 문화이다.

2. 3. 문헌자료를 통하여 본 안꺠브문화와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조선적성격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조선적성격은 일부 문헌자료들을 통해서도 밝힐수 있다.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창조한 주민집단들에 대하여 전하는 문헌자료로는 중국 진나라의 진수(233-297)가 편찬한 《삼국지》와 중국 남북조시기 송나라 사람인 범엽(398-445)이 편찬한 《후한서》 등을 들수 있다.

《삼국지》, 《후한서》를 비롯한 옛 문헌자료들에 의하면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초기철

기시대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이 고대조선사람의 한갈래인 옥저인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옥저인들은 대체로 오늘날의 우리 나라 함경남북도와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지역을 차지하고있었는데 옛 문헌기록들에는 동옥저와 북옥저로 구분하여 전하기도 하였다.

북옥저는 오늘날의 우리 나라 함경북도 북부해안지대와 두만강중류지역, 로씨야의 연해변강남부지역에 퍼져살면서 북쪽으로는 부여와 읍루, 서쪽으로는 고구려와 린접하고 있었다.

북옥저인들이 고대조선사람의 한갈래라는것은 옥저인의 《언어, 음식, 거처, 옷차림새가 구려인들과 흡사》하다고 전하는 《후한서》 동옥저전의 기록과 《예와 옥저, 고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다.》고 전한 《후한서》 예전의 기록을 통해서 명백히 알수 있다.

또한 《삼국지》 권30 위서 동옥저전에서는 동옥저(남옥저)가 구려와 언어가 대체로 같았다고 하였고 같은 책 위서 고구려전에서는 고구려(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서 언어와 여러가지 점이 부여와 같았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동옥저(남옥저)와 북옥저는 그 풍속이 서로 같다고 하였다.((《조선단대사》(부여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0(2011)년 33~34페이지)

이러한 자료는 고대시기에 북옥저와 동옥저(남옥저), 부여는 다같은 계통의 주민들로 이루어져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므로 크로우노브까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을 고대조선사람의 한갈래로 보게 되는 것이다.

좁은낫단검관계 유적과 유물들이 연해변강남부지역에서 알려지는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실증해주는것이다.

이처럼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지역의 크로우노브까문화는 우리 나라 고대문화와 뿔수 없는 련관속에서 창조되고 발전한 조선적성격이 뚜렷한 문화이다.

3. 결 론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초기철기시대 문화는 우리 나라 고대문화와 공통성을 가지는 조선적성격이 뚜렷한 문화이다.

이미 앞에서 론한바와 같이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얀꼬브문화의 유적과 유물갯춤새는 오동유적, 초도유적, 범의구석유적 등 우리 나라의 동북부지역의 고대문화와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리고 얀꼬브문화에 뒤이어 창조된 크로우노브까문화의 유적과 유물갯춤새는 좁은 낫단검문화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나라 고대문화와 다름없는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의 초기철기시대 문화가 우리 나라 동북부지역의 고대문화분포령역에 속하며 이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은 고대조선주민들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이처럼 로씨야 연해변강남부일대에서 창조된 초기철기시대 문화는 당당히 우리 나라 고대문화의 한 부분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 력사유적유물의 발굴과 그를 통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풍부히 해나가야 할것이다.